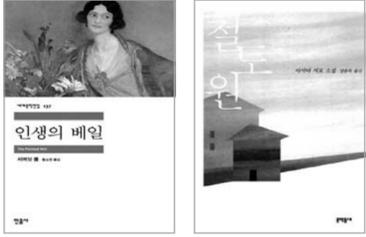


원작 소설 읽고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눠요

‘소설영화독본’ 상반기 일정 공개
‘델러웨이 부인’ ‘장미의 이름’ 등
20일 광주극장서 올 첫 모임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조지 오웰의 ‘1984’, 서머셋 모음의 ‘인생의 베일’, 켈 로치의 ‘빵과 장미’ 등 다양한 고전 소설과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영화 칼럼니스트 조대영이 진행하는 소설영화독본 아리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원작 소설을 읽은 뒤, 2주 간격으로 만나 영화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올해 첫 일정은 20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시작된다.

첫 포문을 여는 작품은 ‘장미의 이름’이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을 장 자크 아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다.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방대한 지식과 기호학이론을 추리소설로 풀어낸 작품으로 영화는 손 코너리와 크리스찬 슬레이터를 수도사 윌리엄과 제자 아드소로 캐스팅해 중세 이탈리아의 한 폐쇄적인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흥미진진하게 연출했다.

버지니아 울프가 쓰고 마블린 고리스가 감독한 ‘델러웨이 부인’ (2월3일)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단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델러웨이 부인의 한 평생과 런던 사람들의 일상을 소개한다. 인물의 의식을 따라 복잡하게 흐르는 울프의 독특한 작법을 살리고자 독백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아사다 지로의 단편소설을 후쿠하라 야스오 감독이 영화로 만든 ‘철도원’ (3월3일)도 다룬다. ‘철도원’은 평생을 철도에 바친 노(老) 역자의 이야기다. 그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어린 외동딸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을 지킨다. 영화는



소설영화독본 아리 ‘20세기소설영화독본’ 첫 모임이 오는 20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사진은 영화 ‘일 포스티노’.

■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

날짜	소설/영화	원작자	영화감독
1월20일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장 자크 아노
2월 3일	델러웨이 부인	버지니아 울프	마블린 고리스
2월17일	모테라토 칸타빌레	마르그리트 뒤라스	피터 브록
3월 3일	철도원	아사다 지로	후루하타 야스오
3월17일	목로주점	에밀 졸라	르네 클레망
3월31일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라브 스필만	로만 폴란스키
4월 7일	1984	조지 오웰	마이클 래드포드
4월21일	자칼의 날	프레드릭 포사이스	프레드 진네만
5월12일	나는 전설이다	리처드 매드슨	프란시스 로렌스
5월26일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일 포스티노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마이클 래드포드
6월16일	인생의 베일 /페인티드 베일	서머셋 모음	존 커란
6월30일	빵과 장미	캐서린 패터슨	켈 로치

사라져가는 장인정신의 혼을 서정적으로 담아냈다.

1877년 출간된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 (3월17일)은 파리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과 이 과정에서 몰락해가는 인간성을 고발하는 자연주의 소설이다. 이를 영화로 만든 ‘목로주점’은 ‘금지된 장난’, ‘태양은 가득히’를 연출한 르네 클레망 감독의 작품으로 빈곤과 퇴폐에 찌든 파리 뒷골목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디스토피아 소설인 조지오

웰의 ‘1984’는 4월7일 다룬다. 오세아니아의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이 허구적 인물인 빅 브라더를 내세워 텔레스크린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생활과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내용을 마이클 래드포드가 영화화한 ‘1984’도 만날 수 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알려진 파블로 네루다를 만나보는 시간도 갖는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5월26일)는 파블로 네루다와 젊은 우편배달부의 만남을 그린 작품이며, 이를 영화로 만든

‘일 포스티노’도 만날 수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빵과 장미’ (6월30일)로 마무리한다. 19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로렌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파업을 배경으로 한 캐서린 패터슨의 ‘빵과 장미’와 이를 영화로 만든 켈 로치의 작품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밖에 ‘모테라토 칸타빌레’, ‘피아니스트’, ‘자칼의 날’, ‘나는 전설이다’ 등도 다룬다. 문의 010-4660-5792.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연의 문화카페

지난 1월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배우 ‘이색적인’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예년 같으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100만 여명의 인파와 화려한 불거리로 불야성을 이뤘지만 올해는 180도 달랐다. 코로나19로 뉴욕판 ‘제야의 종’ 행사인 ‘타임스퀘어 볼드롭’ (Times Square ball drop)이 취소된 데다 초대장을 받은 40여 명만이 참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기념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다. BTS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글로리아 게이너 (Gloria Gaynor)가 무대에 오른 것이다. 칠순의 여가수가 타임스퀘어에 초대된 건 그

색한 표정을 지으며 텅빈 객석을 향해 가볍게 목례만 한 뒤 지휘봉을 잡았다. 어느 때 같으면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의 전주에 맞춰 신년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됐지만 이날은 볼 수 없었다. 특히 신년 음악회에서 관객 대신 단원들이 1인 2역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렁찬 행진곡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가 들리지 않자 연주를 마친 단원들이 스스로 무대를 발로 구르며 어색한 침묵을 깨뜨린 것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앙코르곡인 ‘라데츠키 행진곡’의 선율이었다. 비록 경쾌한 리듬과 박자에 맞춰 관객들이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은 없었지만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

‘We will survive’

녀의 대표곡 ‘I will survive’ (나는 살아남을 거야) 덕분이다. 1978년에 발표된 이 곡은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 ‘홀리데이 노래’이지만 지난 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송’으로 수십년 만에 역주행한 것이다. 비록 화려한 조명도 없고 관객들의 우뢰같은 박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스크를 쓴 채 띄엄 띄엄 서 있는 수십 명의 청중을 향해 ‘I will survive’를 외쳤다.

그나마 뉴욕의 새해맞이엔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에 비하면 행복한(?) 편인 것 같다. 1932년 시작된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거르지 않는 등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음악회이지만 올해는 단 한명의 관객이 없는 비대면 공연으로 열린 것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79)도 유례없는 무대가 낯설었는지 어

원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는 전 세계 ‘팬션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다.

2021 신축년이 밝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 한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특히 무대가 사라진 예술가들에겐 더욱 그렇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쳐선 안될 터. “인간은 패배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폭풍 성장으로 ‘I will survive’를 불러 맨하탄 밤의 정적을 깬 노 가수처럼 조금만 더 버티자.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므로. “I’ve got all my life to live, and I’ve got all my love to give (아직 살아야 할 인생이 남았고, 줘야 할 사랑이 남았어)/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난 살아남을 거야).”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국악문화학교·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빛고을국악전수관, 29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광주시 서구 금호동)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73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보, 해금, 정가 등 9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초·중급반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강좌로는 가야금, 해금 2개 강좌가 마련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 및 어린이는 오는 29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되며, 각 과정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062-350-4557)으



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국악전용 공연장으로 국악전수실과 국악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악문화학교는 지금까지 2만10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해남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작가 3명 모집

다음달 8일까지 접수

해남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2021 3기 입주작가를 오는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입주 기간은 오는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입주 인원은 3명이다. 모집 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 및 청소년, 번역, 평론이며 기

성작가와 예비작가로 구분한다.

기성작가는 신춘문예나 문학전문지 등 등단한 지 3년 이상,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문인이면 된다. 예비작가는 작품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등단작가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1개월 당 15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서 집필계획에 따라 성실한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 아울러 월 1회 결과물(주제 자율)은 땅끝순례문화관 및 백련재 계간 소식지에 게재된다.

이번에 선정된 입주작가는 작가 소개 및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홈페이지 (http://gosan.haenam.go.kr)에서 입주작가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lee181020@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061-530-513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범설로 16-1(자선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안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

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법무사 김운희사무소
목포시정의로26-4번초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연혁,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드림케어슬루션
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도정기
☎ 010-3118-5679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제니골드(귀금속카페)
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라떼,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